

텔레비전 부엌문화: 공간의 생산과 기능, 그리고 소통

함 현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Television Kitchen Culture: Space Production, Function, and Communication

Hyun Hahm

Dept. of Broadcasting & Film, Chungwoon University

요약 인간의 거주환경에 있어서 공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간은 단순한 거주의 공간을 벗어나 삶의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특히 생활공간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부엌은 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상성의 문화가 부각되고 있다. 그로인한 일상성의 공간을 대표하는 부엌은 매우 중요한 생산과 기능에 따른 소통의 역할을 강조하는 텔레비전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부엌은 다양한 경험이 창발 하는 공간이다. 음식을 조리하고, 맛을 경험하고,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으로 이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재매개 현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부엌의 수용적 공간의 특성은 음식을 통해서 공간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tvN의 <윤식당1>의 프로그램 텍스트 분석을 통해 부엌의 생산과 기능에 따른 소통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인간에게 있어서 부엌의 공간이 다양한 감각기관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문화적 할인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험의 확대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시간성이 내재되어 있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bstract Space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human residential environment. Space is where the direct experience of life and expansion of that experience are made out of simple residential space. In particular, kitchen space is where the importance of the living space is perceived and is becoming an everyday part of life through television programs. Thereby, kitchen space is where the culture of everyday life plays a role in communication based on the very important production and function of television culture. The kitchen is where various experiences emerge. It is a space where the phenomena of communicating through cooking, experiencing tastes, and communicating with family members is real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nd production in the kitchen through analysis of "Yune Restaurant 1" on tvN channe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human kitchen space leads to expansion of various experiences in the process of various cultural discounts.

Keywords : Communication, Function, Production, Space, Television Kitchen Culture

1. 서론

일상생활의 문화에 있어서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간이라는 말은 “자리를 만들어낸다, 비워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다, 떠나다, 치우

다” 등의 다양한 의미의 동사 ‘로이벤’에서 비롯되었다 [1]. 가정의 거주 공간에서부터 사회문화적으로 확산되는 공간의 특성은 구조적으로 발전하거나 생산과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소통의 창구역할로 이어지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2017년 청운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 조성으로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 Hahm(Chungwoon Univ.)

Tel: +82-41-630-3265 e-mail : poparts@chungwoon.ac.kr

Received January 15, 2018

Revised January 31, 2018

Accepted February 2,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공간은 다양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다양한 장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동하고 옮기거나, 새롭게 꾸미거나, 비우거나하는 행위들은 ‘로이덴’의 의미를 충족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설정한 공간의 좌표는 인간이 실제 머무르거나, 사용하거나, 위치하거나 다양한 경계의 판타스마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간은 그 특성과 배열, 질서라는 고유의 성격을 고려할 때 거기서 살고 체험하고 관계를 맺는 주체의 표현 방식, 입증방식, 실현방식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된다[2].

최근 들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새로운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집짓기, 거주공간의 개선, 부역의 수용적 공간으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형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거주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역 공간의 기능적인 역할을 통해 소통하는 삶의 모습을 부각하는 방송프로그램의 특징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소개되고 있는 친숙한 부역 공간에서 생산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특성에 따른 미디어 문화의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에 따른 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체험공간으로 확장되는 부역을 중심으로 행위와 상호작용에 따른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tvN의 <윤식당 1>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부역의 공간이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부역이라는 공간을 하나의 생산물과 생산자의 역할과 인간관계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일상성의 문화의 관계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공간의 개념 정의

인간이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공간을 창출한 것이다. 공간 창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거공간의 건축양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공간은 인간을 보호하고, 다양한 공간의 활용을 통해 주

거문화의 확장성을 갖고 있다. 더구나 공간은 인간에게 환경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동방식을 결정하게 만드는 물리적인 구성체이다[3]. 이러한 물리적 구성체계의 특징은 문화의 다양성을 연결하는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

바슐라르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공간속에서 보호 받고 있다. 공간은 친숙하고, 친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공간은 항상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와 경계의 역할을 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옛것을 보존하고자나 새로움을 창출하는 창구의 역할을 통해 다양성의 문화를 형성한다. 공간과 시간은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공간’ 속에서의 모든 변화는 시간 속에서의 변화이다. 시간 속에서의 모든 변화는 공간속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4]. 그러므로 공간은 시간의 변화에 동일시되거나, 분리되거나, 합쳐지는 다양한 효율성의 장소로 인식된다.

생활공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역은 일상성의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역 공간은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감각기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집합소이다. 더불어 가사노동과 다양한 체험의 공간으로 가족구성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역은 ‘소통’과 ‘배려’의 시간성이 존재하는 일상성의 문화에서 가족구성원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2 부역과 체험공간의 확장

인간의 거주 공간은 시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을 구성하는 공간과 공간의 외벽은 단절을 의미하지만 마루의 통로는 공간을 연결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가옥의 부역을 살펴보면, 방을 구성하는 공간과 떨어져거나 분리된 구조의 위치에 있었다. 현대 거주 공간에 있어서 부역은 방의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중앙 통로 역할의 중심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부역은 가족 구성원을 위한 자양분의 공급처이며 다양한 감각기관의 체험이 발현하는 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더불어 인간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거주 시간의 보내고 다양한 음식의 섭취를 통해 감각기관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부역은 중요한 창구의 역할을 한다.

인간의 거주공간에 있어서 부역을 크기나 형태와 상

관없이 필수적인 공간으로 많은 변화의 형태와 구조로 확장되었다. 거주공간에서 가장 활발한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엌의 공간은 하나의 체험공간으로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부엌의 공간은 인간의 삶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으로, 맛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가족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새로움이 탄생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는 공간으로 음식문화의 다양성이 확장되는 특수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3 체험과 행위공간의 상호작용

체험 공간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 열려 있는 공간으로, 단순히 경험하거나 상상하거나 공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현실의 구체적인 공간이다[5]. 전통주택 구조에 있어서 부엌은 음식을 조리하는 가사노동의 공간으로 방과 부엌의 공간과 단절된 분리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현대 주택구조에 있어서 부엌은 식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과거와 현재까지 부엌은 ‘도구적’ 공간의 집합체이며 불과 물의 사용과 다양한 재료들의 조합과정의 터득을 통해서 완성되는 집합체의 체험과 행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공간은 우리 삶에 대한 가치와 일상생활의 아비투스(a)가 체현되는 장으로 본다면 부엌은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진 장소이며, 생존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곳이며, 여성의 역사를 체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6].

현대에 와서 서구식 다이닝 키친의 도입을 통해부엌내 식사공간의 마련은 여성들의 가사노동의 절감으로 가져오기로 하지만 전통주택에서 남성들의 출입이 금기시되던 부엌에서 벗어나 남성 가족의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고[7] 가족 공동구성원의 공동 공간으로 발전되었다.

부엌은 가족 구성원의 공간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체험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부엌은 인간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머무르는 공간, 즉 일을 하거나 쉬면서,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이 거주하며 머무르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8]. 특히 다양한 주방의 도구를 활용하는 도구적 공간으로 행위와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공간으로 행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엌은 ‘도구적 공간의 집합체’로 부엌일의 시작은 모

험과도 같다, 불과 물의 사용과 다양한 도구들의 사용을 통해 재료를 해체하거나 봉합하는 숙련의 과정을 통해 재생산되는 창구의 역할과 조합 과정의 반복적인 완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부엌은 주기적인 반복의 일상적인 공간이지만 항상 조금씩 변화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부엌의 기능과 역할은 차이와 반복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험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음식을 통해서 다양한 감각기관의 경험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음식의 조리를 통해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음식을 섭취하기 위한 단순한 욕구충족으로 벗어나 음식조리의 가사노동 분업과 분담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의 효율성은 오래된 것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2.4 공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인간 삶의 공간성과 인간이 체험하는 공간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서로 대응한다[9]. 공간은 역사성과 현재성에 비추어볼 때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통해 소통의 상호작용이 창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부엌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변화되고 있다. 부엌 공간의 경우를 살펴보면 요리뿐만 아니라 육아, 가족의 소통, 그리고 사회적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다[10]. 또한 부엌의 공간은 중심의 공간으로 변모하여 하고 있다. 단순한 가사노동의 공간을 벗어나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한 경험과 체현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부엌의 공간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소는 ‘소통’과 ‘창구’의 기능적인 역할을 위한 근접하거나, 가깝거나, 언제나 편한 그 자리에 위치한 공간의 특성에 의한 밀접한 거리의 관계를 통해 친근함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짐멜에 의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립은 사람들이 공간 속에서 만날 때의 가까움과 거리로 구분하며, 구성원 상호간의 거리적 가까움에서 결속이 생기는 것에 대해 단순한 사회형태의 표시라고 구분하고 있다[11]. 이렇듯 부엌의 공간은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식을 섭취하기 위한 인간과의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거리 사이의 관계형성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의 다양한 경험의 구조는 장소의 특정한 공간을 통해서 확장된다. 최근 텔레비전에서 부엌의 공간 활용과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와 친숙하게 소통하는 사회적 기능과 담론의 형성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부엌공간을 활용한 사회문화적 담론이 형

성하고 있는 주제는 인간의 거리적 가까움을 통해 진정한 소통의 창구역할과 열린 공간의 친숙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간은 행동을 부르고, 또 행동이 앞서 상상력이 활동하는 법이다[12]. 따라서 부엌은 수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지속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재료들의 물질성이 집합체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행동과 상상력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일상성의 중요한 공간의 역할을 한다. 또한 부엌은 생활공간으로 일상성의 행위가 상호작용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3. <윤식당1>의 텍스트 분석

3.1 통합체 분석: 스토리 전개구성

tvN <윤식당1>의 프로그램은 발리 휴양지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식당을 오픈하여 한국 음식을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스토리 구조의 전개 방식을 갖고 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여유로운 휴양지에서 펼쳐지는 음식을 통해 관찰형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 형식을 통해 진정성의 모습을 담아내는 기획의도를 갖고 있다. 특히 외국 레스토랑의 부엌 공간에 만들어지는 한식의 조리과정과 외국인들의 한국 음식으로 통해서 음식 문화의 공유와 음식을 통해 소통으로 이어지는 에피소드의 구성 전략은 공간과 장소의 경계를 허무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스토리 전개 구성의 특징은 발리의 평화롭고 한적한 휴양지에서 조금은 낯설고 서툴지만 한국 음식을 통해서 진심을 담아내고 소통하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진은 4명으로 윤여정, 신구, 이서진, 정유미가 출연한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진은 음식을 만드는 셰프의 역할, 손님을 맞이하는 역할, 매니저의 역할, 주방보조 업무의 분업을 통해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포맷과 구성형식은 발리 섬의 작은 레스토랑의 주방 공간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목적과 음식을 통해 ‘소통’과 ‘창구’의 역할로 발전하는 상호작용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음식을 통해서 손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보이지 않는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모습을 재조명함으로써 공간의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3.2 계열체 분석: 등장인물

이 프로그램은 발리의 휴양지에서 “윤식당”이라는 한국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을 판매·서비스 하면서 손님들의 반응을 관찰형 제작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발리에서 한국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윤여정은 한국 음식을 통해 음식문화를 전달하는 메인 역할을 한다. 정 유미는 부엌의 보조 업무를 통해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신구는 윤식당을 찾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역할을 한다. 이 서진은 윤식당의 총괄 지배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3 행동자 모델 분석

이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한 그레마스의 행동자 모델은 주체와 대상, 발신자와 수신자, 보조자와 반대자의 대립 쌍으로 행동자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 각각의 대립 쌍은 욕구충족, 선택, 만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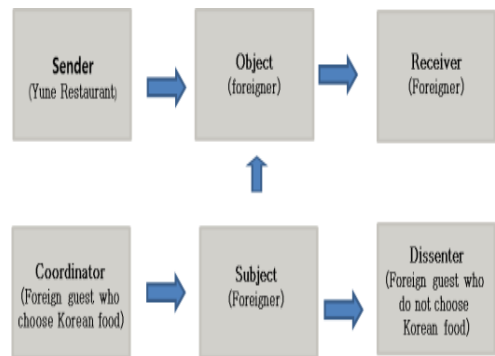


Fig. 1. The model of behavior of Yune Restaurant

그림 1은 <윤식당 1>의 프로그램에서 분석된 행동자 모델의 특징이다. 주체는 윤식당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 윤식당과 외국인 손님으로 음식을 통해 공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표출된다. 보조자와 반대자의 대립쌍은 단순히 음식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대립 쌍의 관계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활인을 극복하고 선택하는 과정의 모습은 다른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욕구충족이 만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3.3.1 주체와 대상

<윤식당 1>의 프로그램에서 주체와 대상은 한국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주체와 그 대상으로는 외국인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한국음식을 선택하고 맛을 즐기는 것이다. 외국의 이색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상황은 외국인들의 한국 음식을 선택하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특별한 공간에서의 음식문화체험은 ‘소통’과 ‘장구’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리의 작은 섬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국 음식 문화의 전파를 통해서 문화적 할인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 음식의 맛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음식문화의 다양성을 통해서 주체와 대상의 봉합은 하나의 공간에서 다국적 문화의 동질감이 조성되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표출되고 있다.

3.3.2 발신자와 수신자

<윤식당 1>의 프로그램에서 표출되고 있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 한국 음식점을 운영을 통해 한식을 판매하기 위한 이미지의 전달은 발신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점을 방문하여 한국 음식을 선택하고 즐기는 수신자의 역할은 호기심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 음식을 조리하고 서비스하는 발신자의 역할은 음식의 생산을 통해서 역할을 수행한다. 수신자인 손님들은 사용자(소비자)의 입장에서 음식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나가는 관계로 이어진다. 그로인한 수신자인 외국인 손님들은 한국 음식점을 선택하기 위한 갈등구조를 겪고, 한국 음식 선택의 과정과 체험을 통해 그들의 합리성과 만족감이 표출되고 있다.

3.3.3 협조자와 반대자

발리 휴양지에 오픈한 한국 음식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식의 문화를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따른 협조자와 반대자의 대립 구조가 표출되고 있다. 협조자의 경우, 한국 음식점의 공간에 설치된 다양한 오브제의 탐색 또는 출입문에 설치된 한식 메뉴나 안쪽 공간의 분위기 등을 통해 한식을 경험하고 그들의 만족감이 충족된 모습들로 표출된다. 그러나 관망의 자세로 살펴보고 선택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결정은 반대자로 표출되는 구조는 관찰과 탐색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한국음식의 문화적 할인의 차이에 따른 차이로 표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표출되고 있는 협조자와 반대자의 상황은 단순한 대립의 관계가 표출되기 보다는 문화적 할인의 차이에 따른 새로운 경험의 선택적 차이로 묘사되고 있다. 한국 음식문화의 호기심과 경험에 의해 선택하는 협조자와 문화적 할인의 차이에 의한 선택의 반대자의 이항대립의 구조로 표출되고 있다.

3.4 기호학적 4각형 모델 분석

이 프로그램의 외국인들의 선택과 갈등구조는 한국 음식점과 한식을 선택하는 모습의 표출을 통해서 공간의 시각적 경험과 맛의 경험을 통해서 기대감과 만족감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음식문화의 체험을 선택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표출되는 윤식당 직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문화적 할인의 차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식당을 단순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문화의 가장 큰 특징인 맛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기대와 만족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식당의 운영을 통해 다양성의 문화가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역할이 묘사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손님들에게 한국 음식을 선택을 위한 의도적인 공간의 설치와 메뉴의 공개를 통해서 관찰형식으로 그들의 행동과 심리를 살펴보고 있다. 일상의 생활에서 음식을 통해 펼쳐지는 스토리 구조는 수용자에게 잔잔한 재미를 주고 있으며 음식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서사구조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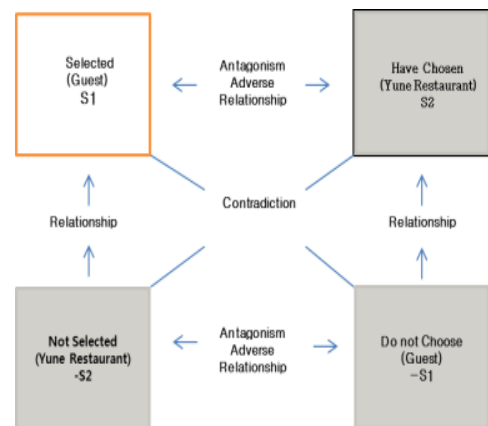


Fig. 2. Semiotic square analysis of Korean food choices by foreigners

반대관계: S1/S2, -S1/-S2
 모순관계: S1/-S1, S2/-S2
 보완-내포관계: S1/-S2 S2/-S1

S1과 S2의 반대관계의 특징은 문화적 할인의 격차에 의한 외국인들의 한국 음식 선택과 외국인들에 의해 선택을 받는 윤식당의 상황적 특징이다. S1과 S2의 모순관계 형성은 발리의 작은 섬에 한식당을 오픈하여 음식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반대의 관계가 성립된다. S1과 -S2의 관계는 보완 및 내포의 관계로 발리의 한국 음식점에서 손님들의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이중적 상황이 펼쳐진다. S2와 -S2의 관계는 외국인들의 선택과 선택하지 않는 상황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4. 결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공간은 다양한 경험적 양식을 포괄하고 있으며 인간의 다양한 감각기관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공간과 장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공통적이거나 특별한 경험의 장소로 발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엌 공간의 생산과 기능에 따른 다양한 소통으로 이어지는 현상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분석의 대상인 tvN의 <윤식당 1>의 프로그램 구성과 형식은 다큐멘터리의 전통적인 표현 방식인 관찰자 기법을 통해 현실감을 살리고 리얼리티를 부각하고 있다. <윤식당 1>의 공간의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경험의 공간과 탐색의 공간인 2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경험적 공간의 특징은 외국인 손님들이 직접적, 실험적, 능동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음식문화의 문화적 할인의 경험을 통해 체현하고자 하는 행위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탐색의 공간으로 비춰진 외국인 손님들에게 있어서 탐색의 공간은 관망적, 수동적, 무관심의 대상으로 문화적 할인의 격차를 최소화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Space of experience	Direct, Experimental, Active
Space of exploration	Pervasive, Passive, Indifference

Fig. 3. Analysis of two-level space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에서 분석된 서사구조의 특징은 문화적 관점에서 다양성을 통해 수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출현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문화의 경험과 감정의 교류를 통한 소통의 구조는 개별적이거나 집단적 경험은 특정한 장소의 공간을 통해서 경험의 감각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관찰된 외국인들의 모습은 한국 음식을 선택하기 위해 비춰진 갈등구조의 상황에 따른 문화적 할인의 현상을 통해 의식화되고 구조화된 경험의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공간과 시간의 경험은 대부분 잠재의식적이다[13]. 인간이 공간에서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한 잠재적 의식과 시간성의 경험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경험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제공받게 된다. 새로움에 대한 경험의 시도 특히 문화적 할인의 격차가 큰 장소와 공간의 경험 확대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통해 일상생활의 새로움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References

- [1] Schroer Markus, 「Räume, Orte, Grenzen」, Eco-Livres Publishing Co, p.29, 2006.
- [2] Bollnow Otto Friedrich, 「Mensch und Raum」, Eco-Livres Publishing Co, p.20, 1963.
- [3] Cho, Haeyoung-Jo, Hyunshin, "Change of Korean Kitchen Desigh in the Point of Feminist View", Korea Society of Basic and Art,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vol. 13, no. 1, 2012.
- [4] Schroer Markus, Above the book, p.40, 2006
- [5] Bollnow Otto Friedrich, Above the book, pp. 17~19, 1963.
- [6] Cho, Haeyoung-Jo, Hyunshin, Above the paper, p.565, 2012.
- [7] Yang, Woo-Chang-Park, Pyeong_Chun, "A Study on the environment change of Kitchen Design Classified by the Age of our Country", Design Science Research, p.50, 2003.
- [8] Bollnow Otto Friedrich, Above the book, p.266, 1963
- [9] Bollnow Otto Friedrich, Above the book, p.24, 1963.
- [10] Cho, Haeyoung-Jo, Hyunshin, Abobe the paper, p.467, 2012
- [11] Schroer Markus, Above the book, p.84, 2006.
- [12] Bachelard Gaston 「Poetry of Space」, ,DongMunSun Publishing Co p.88, 1957.
- [13]Tuan Yi-Fu, 「Space and Place」, DaeYune Publishing Co, p.88, 1995.

함 현(Hyun Hahm)

[증신회원]



- 1997년 9월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TV Broadcasting/Film(예술학사)
- 2001년 2월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석사)
- 2008년 6월 : 고려대학교 영상문화학과 (박사수료)
- 2002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방송, 영상커뮤니케이션, 영상문화